

이텍저의 존재의 추구는 존재자의 추구로 전락될 뿐이다. 인간이 만든 언어가 아닌, 무엇인가 그 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의 언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언어란 어떠한 존재자도 만들지 않은 그런 것인가? 언어란 오히려 나를 위시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하이텍저 자신이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시적언어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못알아 들어도 저것이 내게 나타내는 존재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허무에 빠질 때 남이 인정하든 안하든 자신만의 의미를 부르짖는 바로 그런 몸부림을 하이텍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간단하게 요약된 하이텍저의 후기에 있어서의 자세인데, 바로 이것을 따르는 것이 Fuchs나 Ebeling과 같은 Post-Bultmannian이라고 불리는 성경해석가들이다.

그들이 전술한대로, 성경해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듯하며 또한 그 말씀자체를 그들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가 과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행하신 말씀을 받아드림으로써 성경으로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 아니다. 바로 후기 하이텍저에서의, 언어가 먼저 있어서 그것이 인간존재자에게 호소해 온다는 그와 같은 언어를 성경해석에 적용시킬 뿐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존재자에 의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언어 그 자체의 호소해 움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술한대로 자신의 전기적인 허무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이텍저의 노력의 산물과 일치하는 것이다.

Fuchs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떠돌아 다닌다는, 그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언어일 뿐이다. 그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 낸 말인 것이다. Fuchs가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적 계시의 호소를 거부하는 하이텍저가 허무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기위해 저것이 내게 의미를 준다고 하면서 지적해 놓은 그런 식의 언어 그것이 바로 Fuchs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일 뿐이다.

끝으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그분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말씀으로 받아 드릴까? 우리는 흔히 인간자신의 허무를 깨닫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설교같은 데서 인간의 무상함에 대한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하이텍저가 허무 속에서 발견한 언어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도 바른 성경해석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써 믿는 자만이 이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다.

목회상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고찰

김 병 원

(助教授 · 實踐神學)

I. 목회상담의 의의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은 목회자의 활동분야의 일부분으로서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 주로 공적이고 일방적인데 반해 상담은 개인적이며 쌍방적인 일이다. 설교와 가르침은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고 신자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장케 하는 일을 하게 하며 상담은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시키는 일을 한다. 예를들면, 설교와 가르치는 일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이고, 상담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Public)인 행위를 통하여 해결을 받지 못할 일을 사적(Private)이고 개인적(Personal)인 행위를 통하여 해결받을 일이 많다.

인간은 누구나 제한된 힘을 가지고 죄악과 고통이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을 소유하고 있다. 상담이란, 일방적(one-directional)이며 표면적으로만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단순한 충고(advising)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행동의 중요 변화에 목적이 있는 정신요법(精神(心理)療法: Psychotherapy)도 아닌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영적 심리적 상호작용(A spiritual-psychological Inter Action)이다.

목회활동에 있어서 상담의 중요성은 고조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목회상담을 위하여 목회자를 찾는 인식도도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리 코린스(Ga-

ry R. Collins) 박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당신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나타난 답은 다음과 같다. “10%는 진료소(Clinic), 18%는 심리학자(Psychologist)나 정신병 의사(Psychiatrist), 29%는 의사(Physician) 그리고 42%는 목사(Pastor 혹은 Minister)”이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상담의 범위도 영적인(Spiritual) 분야 뿐 아니라 생의 전 영역 즉 육체적(Physical) 심리적(Psychological) 그리고 사회적(Social) 분야로 확장되는 형편이다.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근에는 상담에 관한 서적들도 많아졌으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목회 상담학(Pastoral Counseling)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회 상담이란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신학적인 입장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새로운 인격의 재형성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죄와 치료에 의한 해답을 주는 행위이다. 환언하면, 목회 상담은 복음의 멧세지(Message)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문제 해결을 주는 일이므로 목회적 대화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로 도움을 구하는 자와 목회자와의 면접 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개인이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우며, 성령의 사역에 의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세우며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목회 상담은 단순히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아판단을 촉구하는 일일 뿐 아니라 피상담자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상담자 자신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원리 속에서 상담자는 “때로는 치료(treat) 하고 가끔 구제(save) 하고 언제나 위로(comfort) 해야 한다.

목회 상담의 성경적 근거는 Counsel(의논; 잠15:22; 습6:13; 왕상12:6; 시83:5; 사40:14; 대하30:2)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어의 étsah가 84회 yaats가 23회 사용되었다. 이 말들의 의미는 조언(勸言: advice)을 주고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적 근거로 볼 때 목회와 상담 사역은 실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우다드(S. Southard)는 교회와 상담과의 관계를 “첫째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풍부한 상담과정(Counseling Process)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와 인격 성장의 표준을 마련해 준다. 둘째는, 목사가 그 교회의 얼굴인 것처럼 목회는 바로 목회 상담이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는 대개 목사와 그 교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하였다. 실로 목회 상담은 또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며 여기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상담(The Whole Counsel of God)을 받아 왔던 것이다.

힐터너(Seward Hiltner)는 목회 상담은 문제를 가진 자와 행해지는 일로서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에는 이해가 있어야 하며 상담자는 피상담자에 대하여 비강제적일 뿐 아니라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자력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며 상담기간을 상담자 자신에게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목적에서 다음 6가지 사항을 말하였다. 첫째, 교회 신도가 자기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고 적어도 어느정도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고 느끼는 일. 둘째, 상담은 이해로서 진행되는 것이요 찬동이나 불찬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상담은 보통 어떤 사람을 도와서 그가 자력으로 일어서게 하는 일이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넷째, 상담은 윤리적인 일을 명확히 하는 일도 포함하지만 강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섯째, 상담의 입장은 교회 신도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포함하며 속임수를 써서 전개해 가는 것은 아니다. 여섯째, 상담을 위한 기회가 되는 상황들은 상담자에 의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 신도에 의하여 극복되어야 할 어려움만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도 생각되어야 한다.

II. 목회 상담의 종류

상담의 종류는 학자에 따라 달리 분류한다. 어떤 이는 15종류로, 또 14종류 혹은 10종류로 분류하나 여기에서는 1종류로 나누어서 생각코져 한다.

A. 결혼전 상담(Pre-marital Counseling)

결혼을 앞둔 남녀는 결혼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 하며 고민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문제들을 요약하면 신앙문제, 성격문제, 부모의 동의문제, 가정, 가문, 직업, 학력 및 능력과 관계되는 교양문제 및 성적문제 등등이다. 이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들은 부모를 위시해서 형제나 친구 등등이 있으나 그 보다 전문적이고 학식이 깊다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결혼전 상담(Pre-marital Counselin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신앙정도와 지(知: intellect), 정(情: emotion), 의(意: will)의 성숙도와 사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 및 조정될 것이나 결혼전 상담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혼은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본인들과 목사는 소홀히 취급할 수 없으며 아주 관심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전 상담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problem)와 책임(respon-

sibility)와 만족 (satisfaction)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을 제공해주는 가치있는 방편이다.

1. 결혼전 상담의 목적

상담자로서의 목사가 결혼전 남녀와 수시간 동안의 상담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기독교 결혼전 상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잘못된 결혼관을 정정해 주는 기회.

결혼전 남녀에게 결혼관계 (marriage relationship) 대화과정 (communication process), 경제문제 (finance problem), 인척관계 (in-laws relationship), 성적문제 (sex problem) 혹은 성격문제 (personality problem)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정정해 주는 것이 결혼전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목사는 상담을 받기 위하여 남녀가 찾아오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권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목사들은 남녀가 진정한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다든지 혹은 피상적인 사랑에 소경이 되었다고 믿고 상담하기를 주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목사가 정당한 방법과 잘 준비된 내용으로 상담회기를 갖는다면 찾아오는 남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전 상담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견해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이전인 대학시절 더 받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 신앙 성장을 위한 기회.

결혼전 상담을 하는 사람은 찾아온 피상담자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서 결혼관계를 위한 확고한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피상담자에게 결혼전부터 개인적인 예배나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계속되면 본인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다른이들에게도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c. 목사와 피상담자간의 내적이고 깊은 관계 (in-depth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기회.

목사는 피상담자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군임을 알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때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d. 정보수집의 기회.

결혼전 상담회기를 통한 교육이 그 어느 다른 기회를 통한 교육보다 피상담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혼전 상담의 목적 중 하나는 남녀가 자기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장단점을 발견하며 또한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조정 (adjustment)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식을 습

득하는데 있다. 성공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여러 방면에 많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피상담자는 목사에게 올 때 많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온다. 이러한 상담회기를 통하여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결혼에 관한 공포나 불안을 해소시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하며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이 아니면 회복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 최후 결정의 기회.

결혼전 상담회기를 통하여 결혼의 최후 결정을 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35%에서 45%의 약혼자가 파혼한다"라는 통계가 나타났다. 상담회기를 통하여 결혼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일도 상담의 효과중 하나이다. 어떤 경우는 상담을 주도하는 목사가 분명하게 들어난 어떤 이유로 결혼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남녀가 부부됨의 부당성을 말해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남녀는 목사의 말을 듣고 따르며 어떤 남녀는 다른 목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f. 결혼식의 계획을 세우는 기회.

남녀가 결혼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면 목사와 결혼 절차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혼 예식이 다양한데 그중에도 기독교적인 방법을 택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간증 (testimony) 과 서약 (commitment)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결혼전 상담의 교육 방편

목회 상담자는 결혼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알고 결혼전 상담 뿐만 아니라 그의 목회활동 즉 설교 교육 봉사 친교등의 종합적이고 다원화된 활동을 통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사는 그가 세운 연중 설교 계획에서 적어도 몇번은 크리스찬의 결혼관에 대한 문제를 취급해야 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이적을 여기에서 행하신 사실을 말해 줌으로 결혼의 신성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부부 일체의 비밀을 말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다 비유하였고 (엡5:22, 23), 예수님이 가르치신 결혼관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를 받아 들이는 것이 비그리스도적 결혼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마19:5, 6). 그리고 목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20:27)는 말씀 같이 부부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단을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 부부의 성경적 진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고린도 전서 12:26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나니”의 원리에 다 부부 관계를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와 같이 부부는 교락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목사는 설교나 교육을 통하여 남녀들이 배우자를 구하는 일과 여기에 관계되어 일어나는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목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올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회내에 “결혼 문제 연구소”나 혹은 “결혼그룹”을 만들든지 혹은 1년에 몇회라도 결혼문제를 취급하는 특강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취급할 내용은 “그리스도교 결혼관”, “신앙과 생활”, “결혼식 준비”, “생활관리”, “직업 및 경제면을 포함한 장래의 생활계획”, “결혼과 의학”, “남녀의 개성조절” 및 “현대 가족의 사회학적 분석과 법지식” 등등이다. 이러한 설교, 교육 및 세미나(Seminar)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정확한 지식을 주어야 한다.

3. 신앙이 다른 남녀

목회 상담자는 신앙이 다른 남녀를 대하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적지 않다. 불신자나 혹은 우리와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일이며 이는 교회 남녀 청년들에게 부닥친 심각한 문제이다. 목사는 이런 경우에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신 학자들이 행복한 결혼의 조건으로서 손꼽는 것은 “결혼에 적합한 성격 육성(Marriageable Personality Making)이다. 올포트(G. Allport)에 의하면 “성격(Personality)은 심신 양면으로 된 복잡한 다이내믹스(dynamics)로 오랜 육성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격(Personality) 문제보다는 신앙(faith)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다. 목사는 신앙이 다른 남녀를 대할 때 신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이며 그렇다고 시인하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되나 이해적 접근(understandable approach)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 일치를 위하여 조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4.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목회상담자는 그 중간 위치에 서서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해결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목사는 부모와 자녀의 중간 위치에서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와 본인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동기 및 이유를 잘 듣고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연령이 되었으므로 도가 넘는 반대는 금할 것과 자녀에게는 “네 부모를 공경하며 그의 말을 청종하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5. 자유 결혼인 경우

자유(연애) 결혼은 대개 남녀가 교제하고 있는동안 감정이 앞서서 상대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상담을 통하여 진지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자기의 형편과 위치를 인식케 하고 동시에 신중한 태도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장차 후회없는 결혼생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목사는 상담시 여러면에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며 결혼전에 충분한 준비와 결혼생활의 적응 능력을 잘 갖추어 원만한 애정생활을 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B. 결혼 및 가정상담(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사회로서 결혼으로 부터 시작이 된다. 부부상담(Marriage Counseling)은 남편과 아내의 상담을 뜻하고 가정상담(Family Counseling)은 부부나 혹은 부부와 자녀의 상담을 뜻한다.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저기에는 갈등(Conflict)의 요소들이 다분히 깔려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초기 목회자들은 그 어느 다른 상담보다 결혼 및 가정상담을 하는 회수가 더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목회 상담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이처럼 복잡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I never dreamed that people could have so many problems and that their problems could be so complex)이다. 목사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을 받기 위해 오는 피상담자들을 대하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이유로 인해 고민하는 신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적지않다. 고트헬프(Jeremias Gotthelfs, 1797~1854)는 “조국에서 빛나야 할 것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으니 이는 전민족의 생활이 부부와 가족으로 부터 시작이 되고 부부의 파괴는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석재(石材)들이 붕괴되는 것이며 만일 부부가 병들면 사회전체가 병들고 만일 부부가 파괴되면 사회전체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맡은 가정상담의 의무는 실로 중요한 것이다.

1. 가정 상담자의 자격

훌륭한 결혼 및 가정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뿐만 아니라 가정문제에

대한 서적을 많이 읽음으로 지식을 넓혀야 한다. 상담은 목회 상담자의 지식과 경험과 연령 및 태도 등에 의해서 상담 내용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가정 상담자는 일반 상담자에게 요청되는 것 외에도 결혼법 및 가정에 관한 과학적 지식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혼하고 부모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한다. 물론 독신자로서 가정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그 독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과 전문적인 교양이 단점들을 보충할 수도 있는 줄로 안다. 이와 반대로 결혼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할 경우에는 가정 상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상담자는 상담의 기본 원리들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생활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2.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

결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복잡한 일이다. 그 이유는 결혼은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애정적인 차원이 더 높기 때문이다. 완전히 분리되고 독특한 두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identity)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인 압력들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몇가지의 예로는

a.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침식

도덕에 대한 우주적이고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 사사기 21장25절이 말한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같이 현대 사회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음(adultery), 동성연애(homo sexuality), 낙태(abortion) 혹은 이혼(divorce)에 관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많다.

b. 물질주의를 강조

마샬(Peter Marshall)은 물질주의를 "안전을 미끼로 하는 올가미"라고 하였고 에머슨(Emerson)은 "돈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문제는 회생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그 회생의 일부분이란 부부의 결혼생활이 절망적이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부가 도를 넘는 안전과 욕망을 추구할 때의 결과는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결혼은 양적(quantitatively)보다 질적(qualitatively)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c. 남편과 아내의 임무 혼돈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임무에 분명한 선이 꼬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수입원이 둘(two bread winners)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임무도 상

실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임무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d. 외모에 치중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하여 준수한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결과 내적이고 인격적인 면보다 외적이고 미적인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같다.

3. 결혼 및 가정 상담자의 기능

a. 피상담자가 느끼고 있는 상처를 아는 것

대부분의 경우 이 상처가 장기간 계속되어져서 제3자에게 나타낼 수 없을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할 이유는, 피상담자는 상담자가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상담자가 그의 말을 경청한다고 느낀다면 그는 이 문제를 더욱 실제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b. 문제들을 명료화 시키는 것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증상(Symptoms)은 알고 있으나 무엇이 이 증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인(Cause)을 모른다. 상담자를 찾는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은 "나의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나는 모른다."(My problem is I do not know what my problem is)는 것이다. 상담 과정을 통하여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인지(What)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Why)를 알고 그 해결책을 구하게 될 것이다.

c. 부부의 임무를 이해시키는 것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임무인식(role-perception)과 임무수행(role-performance), 또한 임무기대(role-expectation)와 임무수행(role-performance) 간의 차이 때문이다. 임무인식과 임무수행의 차이는 남자나 여자가 자신을 보는 방법과 처신하는 태도의 차이점이며, 임무기대와 임무수행의 차이는 남자나 여자가 그의 배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 그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나라는 차이점이다. 부부는 자기의 임무인식과 처신의 차이를 알기 힘들므로 그 불일치(相異)를 지적해 줄 때 오해하고 각자 각자가 확대받고 좌절되었다고 느낀다.

d. 인식(perception)과 태도(behavior)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가진 상처를 듣고 문제를 명료화하고 임무를 이해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담자는 그들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처신을 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e. 대화의 통로를 열어 주는 것

부부갈등의 제일 큰 원인은 대화의 부족이다. 상담자는 피상담자로부터 "우

리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효과적인 대화는 50대 50의 비율로 말을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대화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감정 또는 느낌(feelings)을 주고 받는 것이다. 환언하면 대화는 이성적(rational)이며 감정적(emotional)이어야 한다. 대화가 사실(facts)과 감정(feelings)을 내포할 때는 양자간에 이해를 촉진시킨다. 정확한 대화는 양자의 위치(location)를 알게 할 뿐만아니라 부부간을 조정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관계에는 누구나 차이(gap)가 있는데 양자가 노력하면 그 gap을 좁힐 수 있다. 이것을 가르켜서 조정(adjustment)이라고 한다. 이 gap을 좁히기 위해서 한쪽 만이 노력하는 행위를 가르켜 추종(compliance)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든지 만일 오래 지속이 된다면 추종자의 희생이 너무 크다. 추종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나 그 마음은 거리가 멀며 이는 마치 한 손으로 박수를 치려는 일과 같다. 그러므로 추종은 조정이 아니다. 조정은 양자가 gap이 있음을 알고 양자가 그 gap이 있게된 이유를 살펴 gap을 좁히려 노력하며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부부간의 관계는 어느 한쪽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진정한 부부관계는 상호간의 화합, 협력, 양보 및 대화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회자의 중재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한쪽의 적극적인 자세로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 세우지 않고 변화된 태도를 가지는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3. 방법과 과정

결혼 및 가정상담의 방법 및 과정은 첫째로 친밀감(親密感; rapport)을 가지며 그것을 유지토록 해야한다. 상담은 인격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므로 이러한 요소가 구비되지 않으면 상담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다. 둘째로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문제에 진실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따뜻하게 그의 말을 수용하므로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자유롭게 말하게 한다. 셋째로 문제의 분석을 빨리해야 한다. 표면된 내용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감정의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넷째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피상담자 자신이 말하도록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담자 자신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혹은 이미 몇가지 방안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목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로 전 단계에서 분석한 문제를 더욱 깊이 통찰하여 해결의 방안을 음미하고 요약한다. 여섯째로 문제의 해결은 피상담자의 책임이니 목사는 충고나 지시는 피해야 한다. 일곱째로 상담 면접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책임을 완수한 상담자가 받는 보상

목사가 부부상담이나 가정상담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전적이고 불가적인 보답은 클 것이고 목회하는 교회에도 다음과 같은 공헌을 줄 수 있다. 첫째로 교회생활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 가정에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되면 건전한 신앙생활 및 교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둘째로 실증되는 목회를 하게 된다. 신자들은 이론적인 가르침 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목회적 배려를 통해서 그것들이 실증되기를 원하고 있다. 셋째로 교회를 건전하게 강화 시키는 일이다. 교회의 구성 단위인 가정이 건전하면 결국 교회가 건전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과 가정이므로 가정의 건전은 곧 교회의 건전이다. 넷째로 가족에 대한 전도의 기회가 된다.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단순한 조언, 충고 및 경험담에 의존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이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상담자를 개발하여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질병상담

인간이 가지는 고뇌중 하나는 육신의 병과 뒤따르는 죽음이다. 인간이 육체적인 병에 걸리면 고통과 불쾌감은 두말 할 나위도 없거니와 자립심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 병자는 병으로 인하여 고독하여지고 또한 고뇌의 의미를 구하여 고독속에서 헤매이기도 한다. 정신 신체의학(psychosomatics; 신체의 병치료에 심리학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의하면 긴장과 불안은 육체의 병을 악화시키며 장기화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체적인 병이 정신상의 장애 요인이 되며 반대로 정신적인 병이 신체적인 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적인 상담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면 전도하심(evangelism), 가르치심(teaching) 그리고 병을 고치심(healing)이었는데 많은 시간을 병자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보내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병자를 고치셨는데(마 4 : 23, 24; 마 8 : 16, 17; 막 1 : 32, 34; 눅 4 : 40, 41; 눅 5 : 15) 그리스도가 자신을 의사(막 2 : 17)로 표현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한 자들로서 자처하고자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적나라한 병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고치는 능을 주셨고 그들은 복음전파와 동시에 병도 고쳤다.(마 10 : 7, 8; 막 6 : 12, 13; 눅 9 : 1, 2, 6)

신약 성경에 보면 병의 치료가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 : 5)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병을 고치셨다. (막 2 : 11) 또한 예수님은 38년간 병들었던 그를 고쳐주신 후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 : 14) 이었다. 여기에 육체적인 것 이상의 것인 죄를 지적하셨다.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병의 치료가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취하시고 짊어지신 하나님의 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부과시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치료는 용서없이 있을 수 없다.

목회자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게 하여야 하며 징계의 유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야 한다. 성경에서 고통의 유익을 말한 대표적인 성구는 시 119 : 67, 71 ; 히 12 : 5~13이다. 목사가 병자를 방문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지시사항에 대하여 에드워드 트르나이젠(Edward Thurneys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만일 당신이 병자를 보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둘째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모든 병의 치료와 구원이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앓는 자의 길은 아주 불안한 것과 밤들을 통과해야 하므로 인내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성경은 인간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자로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과 죽음의 속박에서 구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동시에 기술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하였다. 귀신은 인간의 전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므로 디아볼로스(Diabolos)라고 불린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지 중의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이 말한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강해지므로 징계의 유익을 알고 징계의 유익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시켜야 한다.

목사는 전인(the whole person) 치료를 위해서 의사(physician)와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사와 의사의 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목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키는 일이며,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다. 몸과 영이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같이 목사와 의사의 임무도 떼어 놓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사람의 전신에 관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심령에 미치게 하는 영향을 고린도 전서 6 : 15~19에 말하였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민과 근심은 식욕을 잃게하고 수면과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큰 병을 가진 환자의 40%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던 정신과 의사(psychiatrist)의 말이 있다. 목회 상담자는 종교를 그 모든 나타난 형식에 있어서 “환상”(illusion)으로 관찰한바 있는 프로이드(Sigmund Freud)나, 동양적인 지혜, 심령과학 그리고 신비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융(C. G. Jung)의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며 의학의 영역에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요법만을 사용하는 기독교과학(Christian Science)을 반대하며 육체적인 고통을 순수히 심리학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견해도 동의하지 않는다. 목회 상담자는 육신의 고통과 의사의 활동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D. 이혼상담

이혼은 부부간의 불화 알력이 쌓이고 쌓인데다 하나의 불화의 요인이 다른 요인과 얽혀 부부상호가 감정적으로 적대하고 증오하는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에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목회자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연구하며 교인들에게 설교나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 주며 이혼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불화의 요인을 없이어서 행복한 부부생활이 되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다.

이혼에 대한 견해는 각종의 대립적인 입장이 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이 주신 것이니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절대 非해소주의가 있고 “이혼은 효과없는 결혼의 불행한 부산물이니 회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다”라고 말하는 유책(有責) 이혼주의가 있고 “이혼은 분명한 선한 일은 아니나 악에 대한 구제이다.”라고 말하는 구제 이혼주의가 있고 “결혼은 민사계약의 일종이니 합쳐 놓은 것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파탄 이혼주의가 있다.

이혼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부정(不貞), 성적불만, 불임(不妊), 성격차이, 신앙 및 사상의 불일치, 학대, 폭력, 낭비, 음주, 유기, 범죄, 질병, 인척 및 친척과의 불화, 생활난, 기타 등등이다. 이혼을 하는 사람은 갈등과 고민에 가득 찬 결혼생활에서 해방하려고 하는 심리로 이혼을 하지만 과연 이혼으로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혼율이 높은 서양에서도 이혼자는 사회 사람으로 부터 인격적으로 낮게 평가되며 사회적으로도 신용을 잃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자녀문제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혼의 불행에서 구원하는데 상담을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